

제 30 차 한국학 국제학술대회 및 정기 총회

'학술대회 30 년의 교육적 성과와 미래의 방향'

2012 년 7 월 26 일 (목) - 29 일 (일)
Hyatt Regency Reston, Reston, VA

제 30 차 한국학 국제교육학술대회 및 정기 총회가 "학술대회 30 년의 교육적 성과와 미래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2012 년 7 월 26 일부터 29 일까지 재미한국학교 14 개 지역협의회 및 미주한인학교 연합회, 캐나다 연합회, 아르헨티나, 과테말라 등의 지역에서 총 800 여 명의 한국학교 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본 협의회와 고향인 워싱턴 DC 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기조 강연을 비롯하여 김세중 국립국어원 공공지원단장, 이채진 클레어몬트 맥케나 명예교수, 스티브 모리슨씨, 방정웅 SATII Korean 모의고사 평가위원장 및 노영혜 종이문화재단 이사장의 특강과 종이 접기 강의를 비롯하여 42 개의 분방 강의 및 6 개의 세미나와 라운드 테이블 등의 강의를 (참조: 학술대회 특강 및 분반 강의표) 진행 되었다.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 나스)는 지난 1981 년에 창립되어 31 년이 지난 현재 북미 전역에 총 14 개의 지역협의회로 구성되어 있고 해마다 700-800 명의 한국학교 교사들이 북미, 남미, 동남아시아, 호주, 유럽 및 중국에서 부터 참석하는 국제적인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15 대 에서는 3 대 중점 사업과 10 대 육성 사업을 진행하며 체계적인 한국어 및 한국 역사 문화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육 평가의 개발과 한국어 3 급 교원 양성과정 등을 진행해 왔다.

특별히 30 차 학술대회는 사업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심용휴 총회장을 중심으로 한 15 대 임원진과 이사회 그리고 14 개 지역 회장단의 긴밀하고도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이루어졌고 외교통상부: 재외동포재단, 교육과학기술부: 국립국제교육원,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주미한국대사관, 경기도, 경희사이버대학교, 김구재단,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연합뉴스, 월드코리아뉴스, 종이문화재단, 연합뉴스, 해외한민족교육진흥회, 해외책보내기협의회, UNIST, YTN 등이 후원하였다.

한국어 3 급교원양성 집중연수

일시: 2012 년 7 월 24 일-26 일 (화-목, 오전 8 시 30 분부터 오후 7 시 10 분까지)

장소: Hyatt Regency Reston, Reston VA

2012 년 1 월 NAKS 와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국제언어교육원이 공동으로 국립국어원에 제출한 온라인/오프라인(집중연수) 통합 한국어 3 급 교원 양성기관 자격 기관 심사가 통과되어 NAKS 가 한국어 3 급교원 양성기관으로 인가를 받게 됨으로 NKAS 가 한국어 교육기관으로 인정 받음과 동시에 전문적인 교사를 양성하여 효과적으로 한국어 교수를 할 수 있는 교사 양성기관으로서의 그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한국어 3 급 교원 양성과정은 문화체육관광부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의거한 온라인/오프라인 (집중연수) 통합 과정으로 국어기본법 시행령이 정한 강좌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교육을 통해 효과적으로 학습함으로써 한국어교원 3 급 자격증 취득 요건을 갖추게 되며 본 과정 수료 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하면 국어기본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발급하는 한국어교원 3 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최미영 부회장의 사회로 심용휴 총회장의 환영인사와 김세중 국립국어원 공공 지원단장의 축사 및 교수 소개로 개회식을 마치고 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까지 총 21 시간의 수업을 마치는 과정으로 11 개의 지역협의회 및 캐나다 협의회에서 52 명의 교사가 신청하여 전원 수료하였다. 교수 내용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120 시간 교육과정 중에서 21 시간을 수료하였는데 이에는 한국어음운론 1, 한국어쓰기교육론, 한국어어휘교육론, 한국어발음교육론, 한국어말하기교육론, 한국문화교육론, 한국어교육정책론이 포함되었고 김세중 국립국어원 공공지원단장, 조태린 한국어세계화재단 송향근 이사장, 국립국어원 학예연구관, 이화여자대학교 이해영 교수,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육효창 교수, 호남대학교 이관식 교수가 강의를 맡았다.

수료식은 목요일 점심 시간에 진행되었고 국립국어원 민현식 원장과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심용휴 총회장 공동 명의로 수료증을 수여 받았다. 집중연수회 수업을 받은 교사들은 열정을 다하여 강의하고 교사로서의 모범도 보여준 교수님들께 감사했고 연수회 직후에 받은 평가서에서 선생님들은 모든 교수님들께 100%에 가까운 최대의 만족도를 보였다. 이번 집중연수회를 통하여 나스 선생님들의 연구에 대한 열정과 성실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큰 계기가 되었다. 토요일 오전에 송향근 교수와 육효창 교수가 함께 한 한국어 3 급 교원 양성 과정 및 자격 시험에 관한 라운드 테이블에도 많은 교사들이 참석하여 120 시간 연수 및 3 급 교원 자격 시험에 관한 관심과 열정을 보여 주었다.

2012 년 8 월까지 120 시간 양성 과정을 마칠 교사의 수는 약 20 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도 2011 년에 이어 학술대회 기간 중에 개최되는 오프라인 과정(집중연수)에 신청이 쇄도하여 공문 발송 1 달 만에 신청서가 마감 되었다. 이는 나스 선생님들의 체계적인 교사 교육과 자격에 대한 목마름을 여과 없이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내에 만 한글학교가 953 개나 될 만큼 미국에 학교들이 늘어 났으며 이제는 한글학교도 자격증을 가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사들로 구성이 되어야 할 때가 되었다. 우리 주말한국학교 교사들은 이미 많은 교육 경험을 가지고 있으나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갖춘 교사는 숫자가 적으므로 전문성을 갖춘 교사의 양성이 매우 시급하다. NAKS 는 지난 30 년간 학술대회를 통하여 연수회를 개최하여 각 참가 교사들이 10 시간 이상의 연수를 받아 왔으나 이를 평가 받을 기회도 없었다. 그런데 이제는 한국 정부에서 인가된 교육과 함께 자격증까지 받을 수 있는 한국어

교원 양성 통합 과정이 생겼으므로 나스 31 주년을 맞이한 현재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앞으로 나스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목요일 특강 및 만남의 시간

일시: 2012 년 7 월 26 일 목요일 오후
장소: Hyatt Regency Reston, Reston VA

본 학술대회 개최지역인 워싱턴지역협의회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수요일 아침 일찍부터 호텔로 출근하여 강의록, 한인교육연구, 30 년 화보집 등의 출판물과 종이문화재단의 회지, 색종이와 풀을

비슷한 개별 문서를 첨부하여 학술대회 가방을 준비하는 일을 시작하였다. 명찰도 명찰 케이스에 넣고 명찰 뒷 부분에는 금요일과 토요일의 저녁 만찬표를 넣어주었다.

목요일 오후부터 시작된 학술대회는 김세중 국립국어원 공공지원단장, 이채진 클레어몬트 매케나 대학교 명예교수, 방정웅 SAT 한국어 모의고사 평가위원장의 특강과 종이접기 강습, 한국입양홍보회 MPAK 설립자인 스티브 모리슨 씨가 진행하는 한국학교에서의 입양아 교육 등에 관한 특강이 있었다.

김세중 국립국어원 공공지원단장은 '한국어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어 특강을 하였는데 오늘날 한국어는 사용자 수로 세계 13 위 정도의 비중 있는 언어가 되었으며 한류 확산과 함께 전세계에서 한국어 학습 수요는 매우 높다고 하며 한국어가 고대, 중세, 근대를 거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문자, 문체, 어휘, 표기법 등에서 어떤 변화를 겪어 왔는지 살펴봄으로써 현대 국어의 특성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고 한국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는 강의를 통해 한국학교 선생님들께 도전을 주는 특강을 통하여 참석한 교사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Claremont McKenna College 명예 교수이며 UCLA 정치학 박사로서 **미국에서의 북한 및 한국 문제 전문가인 이채진 박사**는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라는 역사 특강을 통하여 광복과 남북분단 이후의 한반도에서 일어난 정치 경제 사회적 일련의 사건 및 남북관계 등을 매우 객관적인 입장에서 설명하고 일련의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에 관해서 해박하면서도 재미있게 풀이해 주었다.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 안정, 번영, 그리고 통일을 생각할 때 미국의 중요한 역할을 객관적이고 균형있게 인식하며 지난 역사의 교훈을 통하여 재미동포들이 해야 할 일을 모색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방대한 양의 내용에 비해 시간이 모자란 것이 매우 안타까운 시간이었다.

방정웅 SAT II 한국어 모의고사 위원회 평가위원장은 2012 년 16 회 SATII 한국어 모의고사 평가 및 특강에서 한국어가 SAT II 본고사에 9 번째의 외국어로 채택이 된 이후 2009 년에는 4,626 명이 한국어를 응시하여 매우 성공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고 다른 외국어에 비하여 높은 점수를 얻고 있다고 하며 SAT II 모의고사는 우리의 2 세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의 정착에 공헌을 하여 왔음을 강조했다. 금년으로 16 회를 맞는 SAT II 한국어 모의고사 결과를 분석하여 이제까지 16 회나 계속된 모의고사 시험 문제를 item pool 화 하는 방안과 향후 모의고사의 활성화 및 개선 방안을 함께 나누었다.

한국입양홍보회 (MPAK) 설립자인 스티브 모리슨씨는 '세 번째로 제일 좋은 결정'이라는 제목으로 제 6 회 한국학교 입양아 교육 특강에서 14 세에 미국 가정에 입양된 입양아의 한 사람으로 자신의 행복과 성공을 한국 고아원에 있는 불쌍한 아이들을 위하여 입양은 물론 나아가 입양 홍보 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리고 이번 특강을 통하여 나스 소속 한국학교에 찾아오는 미국 한인 입양아들에게 한국학교 교육을 다시 재조명하여 한인입양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는 계기가 되었다.

모리슨 씨는 강의에서 자신이 (양)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을 잊지 못하여 특히 (양)아버지가 말씀하신 "스티브야, 나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몇 가지 큰 결정을 잘 내린 것이 있다. 제일 좋은 결정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 좋은 결정은 네 어머니와 결혼한 것이었고, 세 번째로는 너를 우리 가정에 데려온 것이었다." 것에서 아버지의 큰 사랑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저녁 마다 한국에서 가져온 성경책을 1 장씩 읽고 . "한국이 아무리 가난하고 약하고 작은 나라이더라도 나의 어머니의 나라임에는 틀림이 없다." 라고 일기장에 쓰며, 언젠가 성장한 후 한국에 다시 돌아가 한국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싶다고 다짐하였다고 한다. 입양아 교육 특강에 참석한 모든 선생님들이 함께 울기도 하는 가슴 뭉클한 시간이 되었고 입양아 한국어 교육에 대한 꿈과 비전을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참가 교사들로부터 늘 인기가 있는 **종이접기 특강에서 노영혜 종이문화재단 이사장**은 21 세기 문화 예술의 시대에 친환경 소재인 종으로 문화의 유행을 주도하며 종이에 꿈, 희망, 사랑과 평화를 담아

펼쳐서 선조들이 이끌었던 종이 문화 강국의 자리를 되찾고 굳건히 발전시켜 나가야 함을 널리 알리고 장차 세계가 지향하는 종이 문화 산업의 중심국이 되어 세계 제일의 종이 나라의 명성을 되찾고, 한국을 대표하는 통일 문화의 콘텐츠가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강명옥 한국종이접기영재교육협회 회장이 직접 강의한 종이접기 실재를 통하여 교사들은 직접 접어보고 표현해 보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특히 인재로 키우는 영재 종이접기 교실 및 종이 접기 강좌를 통하여 여러 교사들이 종이접기 강사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했다.

다른 교실에서는 지역협의회 회장단 회의가 진행되었고 만남의 시간 이후에는 낙스 당연직 이사과 선출 이사들의 모임인 이사회가 개최되었다. 또한 낙스 31년 역사상 처음으로 **프레스 센터**가 오픈되었고 심정균 낙스 홍보부장이 원고를 작성하여 송고하고 인터뷰할 선생님들을 모시고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프레스센터에는 한국에서 온 연합뉴스, 월드코리언뉴스, YTN 을 비롯하여 워싱턴 지역의 일간지 기자들이 모여 취재 경쟁을 벌이기도 했다.

김에스더 문화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저녁의 '만남의 시간'에는 참석한 선생님들이 모두 모여서 김밥과 콩시루떡 및 절편, 다과와 음료를 함께 나누며 각 지역협의회 회장들이 나와 지역협의회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작년에 이어 김용환 선생님이 30 차 학술대회를 기념하는 자작시를 낭독하였고 정소연 선생님의 가야금 독주가 이어졌다. 넓은 Grandballroom 을 한 번에 사로잡는 바리톤 최인달 교수님 (피아노 민혜원 박사)의 가곡 독창은 참가 선생님들의 마음을 한 번에 사로잡았다. 다음 순서로는 조상구 선생님의 Moon River 와 My Way 를 함께 들으며 즐거운 시간을 통하여 서로를 좀 더 잘 알고 친교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학술대회 개회식

일시: 2012년 7월 27일 금요일 오전
장소: Hyatt Regency Reston, Reston VA

7월 27일 오전 8시 30분부터 남상업 사무총장의 사회로 국기에 대한 경례와 미국 국가 그리고 애국가를 4절까지 함께 부르는 것으로 학술대회 개회식이 시작되었다. 심용휴 총회장은 환영사를 통하여 30차 학술대회에 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민 사회의 한국/글학교 운영과 교사의 역할은 참으로 많은 헌신을 요구하고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어려움이 많지만 선생님들의 열정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여 우리 학생들이 강인하게 자라며 민족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시키고 한민족의 정신과 혼을 되새겨주는 일에 대해 보람과 긍지를 가져 달라고 당부하였다.

총회장 환영사에 이어 모든 한국어 관련 기관들과 한국 정부 및 기업체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임을 강조한 이광호 이사장의 환영사가 있었다. 환영사에서 우리 동포 학생들이 조국에 대하여 자긍심과 관심을 불러일으키려면 한미간의 외교관계가 밀접하고 청소년 모국방문 프로그램이 확대되어야 하며 TaLK 프로그램과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원어민 교사로서 조국에 봉사도 하여 한국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사들은 미국의 Peace Corps 나 이스라엘의 Birthright 같은 프로그램을 계발하는 등 학생들에게 유익한 일에 집중하여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 퍼져있는 주말한국학교를 선도하는 모범 단체로 계속 성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30차 학술대회를 치하하는 메시지를 대한민국 워싱턴 윤순구 총영사가 대독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학술대회 축하 메시지에서 대한민국이 반세기 전에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의 눈부시게 발전한 것은 다름아닌 배움과 가르침에 대한 열정에서 비롯되었음을 강조하며 재외 동포 교육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재외동포재단 김경근 이사장은 축사를 통하여 지난 30년 간 꾸준히 개최되어 온 ‘재미한국학교협의회 학술대회’는 해를 거듭할수록 발전하여 이제 미주 지역의 한글교육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행사로 자리매김 해왔음을 잘 알고 있으며 이번 워싱턴 D.C. 학술대회가 보다 나은 한글교육을 위한 토론과 소통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하며 재외동포재단은 동포 자녀들에 대한 한글교육과 한민족 정체성 유지를 위해 더욱 더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이어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표창장,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공로상,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공로상 (개교 35주년 이상 학교 및 25년 이상 근속 교사), 국립국어원 원장 표창, 국립국제교육원 원장 표창,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총회장 표창 등의 순서와 모두 함께 모여 활짝 웃으며 기념 사진 촬영을 마쳤다.

30 차 학술대회에 기조 강연을 위하여 한국에서부터 참석한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몇 년 동안 낙스 학술대회에 참석하고자 했는데 올해 마침내 참석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는 인사로 시작하여 학술대회에 참가한 선생님들로부터 현재 한국에서는 많이 사라져 버린 전통적인 한국의 어머니의 모습인 자녀를 위해서는 어떤 일이라도 감당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하며 이런 열정과 헌신이 있음으로 낙스가 30 년의 세월을 이어왔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하였다. 다시 한번 선생님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최선을 다해 달라고 부탁했다. 특유의 유머와 위트로 그랜드 볼룸을 꽉 채운 선생님들을 집중하게 하는 강의로 기립 박수를 받았다.

30 차 학술대회에 참석하신 주요 손님은 다음과 같다. 김경근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최영진 주미대사, 윤순구 워싱턴 총영사, 이기봉 워싱턴 교육관, 김세중 국립국어원 공공지원단장 류봉희 교육과학기술부 과장, 안정현 국립국제교육원 연구사, 천진환 김구재단 부이사장, 노영혜 종이문화재단 이사장

30 차 학술대회 개회식의 변화는 손님들의 축사를 이명박 대통령과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의 축사만 직접하고 나머지는 모두 강의록에 있는 글을 참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덕분에 진행 시간이 많이 단축되었고 기조강연 시간이 증가되어 편안하게 강의를 들을 수 있었다.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표창장 수상자 명단 (2012 년부터 감사장에서 표창장으로 승격됨)

	성명	성별	소속 학교	직위	지역협의회 및 추천인
1	엄재윤	남	휴스턴소망한국학교	교장	남서부 (회장: 김윤희)
2	김희몽	남	로드아일랜드한인학교	교장	뉴잉글랜드 (회장: 윤미자)
3	서문원	남	트라이앵글한국학교	이사장	동남부 (회장: 선우인호)
4	이현규	남	맨해튼한국학교	교사	동북부 (회장: 문윤희)
5	한광호	남	랜스데일연합한국학교	교감	동중부 (회장: 강남옥)

6	조정복	여	한국언어문화학교	교장	미시간 (회장: 강용진)
7	황희연	여	모퉁이돌한국학교	교장	북가주 (회장: 이정옥)
8	노옥남	여	느티나무한국학교	교장	서북미 (회장: 정다운)
9	이영미	여	온누리선교교회한국학교	교장	워싱턴 (회장: 이승민)
10	이영준	남	신시내티장로교회한글학교	교장	중남부 (회장: 김용순)
11	이점숙	여	그레이스무궁화한국학교	교사	중서부 (회장: 명계웅)
12	서영완	남	잭슨빌연합한국학교	이사	플로리다 (회장: 김현)
13	구정희	남	예은한국학교	이사장	하와이 (회장: 손애자)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공로표창: 김홍준 전 이사장
- 국립국어원장 교육 공로상: 강주언, 김옥현, 김현, 이시형, 이정옥, 정은애
- 국립국제교육원장 공로상: 김호순, 문성록, 박귀수, 심상연, 정해천, 조신숙, 홍태명
- 재미한국학교협의회 공로패: 장동구 북가주지역협의회 학술대회 위원장

각 기관의 기금 전달식도 있었다.

- 기금 전달: 본 협의회 한국후원회 회장 노영혜, 재미한국학교 워싱턴협의회 (개최지), 김구재단 (김구재단측 요청으로 전달식은 생략하였음)
- 작품 증정: 종이문화재단에서 워싱턴 대사관 및 총영사관에 작품 증정





금요일 오후 강의

일시: 2012년 7월 27일 금요일 오후
장소: Hyatt Regency Reston, Reston VA

금요일 오후에는 총 21 개의 한국어 교육, 교수법, 역사 문화, SAT 한국어 등에 관한 1 시간 15 분 짜리의 강의를 7 개의 반에서 3 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21 개의 강의에는 관심사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위주로 하는 Round Table 2 세션과 주제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하는 세미나 1 세션도 포함되었다. 학교를 운영하는 교장선생님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었던 수업은 교장 라운드 테이블로 심도 있는 진행을 위해서 2 세션에 걸쳐서 진행되었는데 첫 세션은 6 개의 학교 교장이 각 학교에서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행사 사례를 5 분 정도에 걸쳐 발표하는 시간이었다. 참석한 교장들은 행사 및 성공적인 학교 운영에 관해서 관심을 보이며 질문이 이어졌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원하는 주제별로 분반하여 학교 운영 및 문제, 교사 선발 및 장기 근속 장려 방법, 기금 모금 방법, 낙스 및 한국 정부에 바라는 사항 등에 관하여 의논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 교장들은 그동안 답답하고 안타까웠던 문제들을 많이 해결받았다고 하며 앞으로 이런 시간을 더 많이 가졌으면 한다는 바람을 크게 표명하였다. 각 반에서는 강의를 계속되었는데 반마다 교실이 꽉차서 의자를 새로 가져오기도 하고 어떤 반에서는 바닥에 앉아서 공부하는 진풍경도 벌어졌다. 수업이 끝난 후 각 반 마다 평가서를 수집하여 묶음으로 학술대회 담당 최미영 부회장에게 전달하였다.





금요일 저녁 행사

1) 개교 20 주년 이상 한국학교 및 10 년 이상 장기 근속 모범 교사 표창

일시: 2012 년 7 월 27 일 금요일 오후 5:40-6:25 pm

장소: Hyatt Regency Reston, Reston VA

오전 개회식에서 개교 35 주년 이상 한국학교 및 25 년 이상 근속 교사의 표창은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표창으로 이미 진행되었고 오후 시간에는 개교 30 주년 이하 한국학교 및 20 년 이하 근속 교사 표창이 최미영 나스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이번 표창식에는 심용휴 총회장과 이광호 이사장 공동 명의로 표창패를 마련하였고 개교 20 주년 이상은 이광호 이사장이 개교 25 주년 및 30 주년 학교는 심용휴 총회장이 시상하였다. 근속 교사 표창은 심용휴 총회장이 전달을 맡고 서문원, 허병렬, 황보철 전직 총회장이 직접 시상하며 교사들을 격려했다. 다음은 개교 20 년 이상 학교 및 10 년 이상 근속교사의 명단이다.

개교 20 주년 이상 한국학교 명단 (총 21 학교)

번호	연수	설립 연도	학교 이름	소속 지역협의회	교장	이사장
1	40 년	1972 년	디트로이트세종학교	미시간	김선미	김창휘
2	40 년	1970 년	퀸즈한인교회한글성경학교	동북부	이규섭	-
3	35 년	1977 년	성바오로정하상한국학교	동북부	양 글로리엠타	이가별
4	35 년	1977 년	북부보스톤한국학교	뉴잉글랜드	장인숙	정대훈
5	35 년	1975 년	뉴잉글랜드한국학교	뉴잉글랜드	남일	윤경숙
6	30 년	1981 년	오레곤한국학교	서북미	호선희	김성주

7	30 년	1982 년	산호세제일교회한국학교	북가주	정호상	김동욱
8	30 년	1982 년	뉴욕원광한국학교	동북부	박진은	양상덕
9	30 년	1980 년	캔사스시티한국학교	중서부	조영애	김재우
10	30 년	1980 년	달라스한국학교	남서부	김재형	홍선희
11	30 년	1979 년	뉴올리언즈한국학교	남서부	이해원	이기현
12	30 년	1978 년	로드아일랜드한인학교	뉴잉글랜드	김희몽	옥동석
13	25 년	1987 년	아이타스카한국학교	중서부	이현애	박일신
14	25 년	1987 년	블랙스버그한글학교	워싱턴	조영훈	이은영
15	25 년	1987 년	보스톤천주교한국학교	뉴잉글랜드	김현정	-
16	25 년	1986 년	포트워스한국학교	남서부	김미령	-
17	25 년	1986 년	뉴비전한국학교	북가주	이사라	-
18	20 년	1992 년	무궁화한국학교	북가주	장동구	박순근
19	20 년	1991 년	성김대건한국학교	북가주	이정현	-
20	20 년	1990 년	세미한한국학교	워싱턴	이주영	-
21	20 년	1990 년	버몬트한국학교	남서부	김태훈	-

10 년 이상 근속교사 명단 (총 69 명)

번호	근속 연수	성명	영어 성명	소속 한국학교	지역 협의회
1	35 년	박승애	Kim, Sung Ai	성바오로정하상한국학교	동북부
2	35 년	오 카타리나	Oh, Catherine	롱아일랜드한국학교	동북부
3	30 년	이경이	Yi, Kyong I	상향한국학교	북가주
4	30 년	전수경	Jun, Sookyung	필몬트한국학교	동중부
5	25 년	나경애	Na, Kyung Ae	열린문 한국학교	워싱턴
6	25 년	박귀수	Park, Angela	앵커리지 한글학교	서북미
7	25 년	이종숙	Kim, Chongsook L.	프린스톤한국학교	동북부
8	25 년	장인렬	Yim, In Yol	뉴욕한빛한국학교	동북부
9	20 년	김경욱	Kim, Kyung Wook	성바오로정하상한국학교	동북부
10	20 년	김금자	Smith, Cha	포트워스한국학교	남서부

11	20 년	김민정	Kim, Min Chong	무량사한글학교	하와이
12	20 년	명정호	Myung, Jungho	북부보스턴한국학교	뉴잉글랜드
13	20 년	민미란	Min, Meeran	그린스보로한국학교	동남부
14	20 년	배정화	Bae, Katharina	원광한국학교	동북부
15	20 년	백은옥	Lee, Eunok B.	프린스턴한국학교	동북부
16	20 년	송해순	Song, Maria H.	슈가로프한국학교	동남부
17	20 년	양보은	Yoo, Mimi	달라스한국학교	남서부
18	20 년	이지혜	Kim, Jeehea	올랜드한국학교	플로리다
19	20 년	정미숙	Chung, Misook	달라스한국학교 리차드슨캠퍼스	남서부
20	20 년	조영애	Cho, Young A	캔사스시티한국학교	중서부
21	20 년	최미영	Kim, Miyoung	다솜한국학교	북가주
22	20 년	한숙영	Han, Sookyoung	디트로이트한국문화학교	미시간
23	15 년	강명화	Kang, Myoung Hwa	새언약한국학교	워싱턴
24	15 년	김선미	Yoon, Sunmi	디트로이트세종학교	미시간
25	15 년	김숙희	Kim, Paula Sookhee	달라스참빛한국학교	남서부
26	15 년	남궁령	Namkoong, Ryan	필라델피아다솜한국학교	동중부
27	15 년	남혜영	Nam, Hye Young	이스트베이침례교회한국학교	북가주
28	15 년	명성진	Myung, Seungjin	북부보스턴한국학교	뉴잉글랜드
29	15 년	윤미영	Yoon, Mi Young	KMCC 대건한국학교	동남부
30	15 년	윤수연	Yoon, Sue	오클라호마한인학교	남서부
31	15 년	윤은남	Tortorella, Deborah	텔라웨어한국학교	동중부
32	15 년	이경애	Yi, Kyong	임마누엘한국학교	동중부
33	15 년	이연미	Lee, Yeon Mee	빛내리한국학교	남서부

34	15 년	이영미	Lee, Young M	온누리선교한국학교	워싱턴
35	15 년	이영복	Lee, Young Bok	열린문한국학교	워싱턴
36	15 년	이은경	Lee, Eun Kyung	데이비스한국학교	북가주
37	15 년	이희진	Lee, Hee Jin	열린문 한국학교	워싱턴
38	15 년	장인숙	Chung, Insuk	북부보스턴한국학교	뉴잉글랜드
39	10 년	곽미숙	Kwak, Misook Kim	KCPC 주일한국학교	동남부
40	10 년	김경섭	Kim, Kyungsup	시애틀·벨뷰 통합한국학교 벨뷰캠퍼스	서북미
41	10 년	김경아	Kim, KyoungAh	오클라호마한인학교	남서부
42	10 년	김봉구	Kim, Bong	트라이앵글한국학교	동남부
43	10 년	김성미	Kim, Seongmi	성김대건한국학교	동북부
44	10 년	김애경	Kim, Aekyung	뉴올리언즈한국학교	남서부
45	10 년	김은혜	Kim, Grace EunHye	올랜드푸른동산한국학교	플로리다
46	10 년	김태자	Kim, Helen	킬린한국학교	남서부
47	10 년	류인숙	Webb, Insug	포트워스한국학교	남서부
48	10 년	문경숙	Mon, Gyongsook	퀸즈한인교회한글성경학교	동북부
49	10 년	서진섭	Sue, Jin Sup	뉴욕한빛한국학교	동북부
50	10 년	안정옥	Ahn, Jung Ok	원광한국학교	동북부
51	10 년	유은수	Yoo, Eunsoo	실로암한국학교	동남부
52	10 년	이명원	Lee, Myungwon	갈보리무궁화한국학교	동북부
53	10 년	이복선	Yi, Bok Sun	하와이민족학교	하와이
54	10 년	이영희	Lee, Younghi	어거스타사랑의한국학교	동남부
55	10 년	이인숙	Han, Jennifer	세미한한국학교	워싱턴
56	10 년	이치정	Lee, Chi Jung	KCPC 주일한국학교	동남부

57	10 년	이혜영	Lee, Hyeyoung	뉴비전한국학교	북가주
58	10 년	이희승	Park, Jennifer H.	세미한한국학교	워싱턴
59	10 년	임성수	Lim, Sungsoo	오레곤한국학교	서북미
60	10 년	임종각	Lim, Jong Kak	성바오로정하상한국학교	동북부
61	10 년	전선	Jun, sun	퀸즈한인교회한글성경학교	동북부
62	10 년	최명주	Choe, Myungju	오클라호마한인학교	남서부
63	10 년	최지애	Choi, Jia	뉴저지한국학교	동북부
64	10 년	최진하	Choi, Jinha	갈보리무궁화한국학교	동북부
65	10 년	팽현규	Paeng, Hyun Kyoo	예은한국학교	하와이
66	10 년	홍미선	Hong, Hannah	달라스참빛한국학교	남서부
67	10 년	홍소영	Hong, Soyung	실리콘밸리한국학교	북가주
68	10 년	홍영자	Hong, Young-Ja	퀸즈한인교회한글성경학교	동북부
69	10 년	황문옥	Whang, MoonOak	오클라호마한인학교	남서부

2) 제 8 회 나의꿈말하기대회

일시: 2012 년 7 월 27 일 금요일 오후 6:30-7:30 pm

장소: Hyatt Regency Reston, Reston VA

8 회 째를 맞이한 나의 꿈 말하기 대회도 작년 7 회 대회와 마찬가지로 포트폴리오 예선 심사를 거쳐 올라온 학생들의 본선에 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각 지역의 대표 학생들은 자신의 발표 내용을 비디오로 만들어 나의 꿈 말하기 대회 담당 심정균 홍보부장에게 보내면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거쳐서 8 명을 뽑아서 본선에 진출하는 방식이다.

심정균 홍보부장의 사회로 심용휴 총회장의 개회 선언 및 인사말로 시작된 대회는 발표(50%), 원고내용(30%), 감동(20%)의 심사 기준과 심사위원 소개를 마치고 바로 학생들의 발표가 이어졌다. 본선에서 심사를 해 주신 분은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송향근 한국어세계화재단 이사장, 노영혜 종이문화재단 이사장, 이기봉 주미대사관 교육관, 손창현 전직 회장 등이다.

나의꿈말하기대회 참가자 전원에게 주미대사 표창장이 수여되고, 대상 1 명에게는 트로피와 예뻐한복 및 부상을 금상 7 명에게는 트로피와 예뻐한복 및 부상 그리고 8 학년 이상 최고 득점자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이 수여된다. 대상 학생은 창의상으로 상금 \$500 불이 수여된다.

2012 년 나의꿈말하기대회에서 특별한 점은 전직 낙스 총회장님들과 이사장님들이 상금을 모아 학생들에게 상금을 수여한 점이다. 상금을 보내신 전직 총회장님과 전직 이사장님은 서문원, 허병렬, 황보철, 방정웅, 이민노, 김홍준, 이내원 이사장님 등이다.

본선에 진출하여 발표한 학생 및 수상 내역은 다음과 같다.

제 8 회 나의꿈말하기대회 수상자

이 름	수상 내역	지역협의회	소속 학교	학년	원고제목
남미나	금상	남서부	새누리한국학교	6	나의 한송이 꽃
성일현	금상	동남부	대건한국학교	6	따뜻한 리더의 꿈
유 영	대상 창의상	동북부	갈보리문화학교	8	영이의 꿈
전해림	금상	동중부	남부뉴저지 통합한국학교	8	꿈꾸는 약품 개발자
이상일	금상	미시간	세종학교	6	챔피언의 꿈
서강수	금상 문체부 장관상	서북미	금란한글학교	10	김치 외교관이 되고 싶어요
옥주은	금상	워싱턴	열린문한국학교	6	동물들의 행복은 나의 행복
곽수지	금상	플로리다	잭슨빌토요한국학교	6	골프의 여왕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주미대사 및 워싱턴 지역협의회 초청 만찬이 있었고 김에스더 문화부장의 진행으로 김은수 선생님의 문화행사가 계속되었다. 나의꿈말하기대회 심사평은 유인춘 전 문체부장관이 해주었고 최영진 주미대사가 참석하여 시상식을 마쳤다.

3) 낙스 이사회

일시: 2012 년 7 월 27 일 금요일 10:30-2:0 am

장소: Hyatt Regency Reston, Reston VA

금요일 밤 10 시 30 분부터는 2 차 이사회가 속계 되어 낙스 현안 및 감사와 재무 보고 등과 16 대 회장 후보 및 부회장 후보자 선거가 있었다. 부회장으로는 강남옥 현 15 대 부회장과 문윤희 현 동북부 회장 및 선우인호 현 동남부 지역 회장이 선출되었고 회장 후보로는 15 대 최미영 부회장과 강용진 미시간 지역협의회 전 회장이 선출되었다.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3 명을 선출하여 총회에서 인준받는 형식이고 회장은 이사회에서 2 명을 선출하여 총회에서 직접 투표로 1 명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사회는 모든 회순을 마치고 새벽 2 시가 넘어서 마쳤다.



토요일 오전: 특강 및 오전 강의

일시: 2012년 7월 28일 토요일 오전
장소: Hyatt Regency Reston, Reston VA

토요일 오전 특강은 로스앤젤레스 교육구 3가 초등학교 교장인 수지 오박사의 초청 특강으로 '글로벌 시대의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시작되었다. 그랜드 볼룸을 꽉 채운 선생님들의 향학 열기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수지 오박사는 다년 간의 미국 정규 초등학교 교장으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선생님이자 부모인 참가 선생님들의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필요한 부분을 채워준 강의였다. 216명의 교사가 평가서를 제출하였는데 90% 이상의 교사가 매우 필요하고 좋은 강의였다고 평가했다.

많은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되었고 교사로서 자세를 가다듬고 기존의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했으며 옆 사람과의 토론을 통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 기회를 주었고 실제적으로 수업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며 고맙다고 평했다. 강의 시간이 짧아서 모든 준비된 내용의 강의를 듣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표명했다.

특강을 마치고 분반 강의 7 개가 각 교실에서 진행되었다. 라운드 테이블로는 송향근 한국어세계화재단 이사장과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육효창 교수가 함께한 한국어 3 급 교원 양성 과정 및 자격 시험에 교사들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과 질문이 이어졌다.



토요일 오후 강의

일시: 2012 년 7 월 28 일 토요일 오후
장소: Hyatt Regency Reston, Reston VA

토요일 오후에는 총 14 개의 한국어 교육, 교수법, 역사 문화, SAT 한국어 등에 관한 1 시간 10 분 짜리의 강의를 7 개 반에서 2 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금요일에 이어 관심사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위주로 하는 Round Table 2 세션이 진행되었는데 주제는 낙스의 과거 현재와 미래라는 제목으로 전직 회장 및 이사를 중심으로 한 낙스 미래의 진단과 발전 방향과 재외동포재단 이사장과의 대화 (김경근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등이 진행되었다.





토요일 저녁 행사

1) 30 차 정기 총회

일시: 2012 년 7 월 28 일 토요일 3:40-5:40 PM

장소: Hyatt Regency Reston, Reston VA

30 차 정기 총회가 개최되었다. 총회에서는 사업 보고, 재무 보고, 감사 보고, 이사회 보고 등의 사업 보고 및 사업 계획과 예산안 심의 및 통과가 있었다. 2013 년 31 차 학술대회 및 총회 장소로 하와이 지역을 인준하였다. 기타 사항으로 3 명의 부회장 (강남옥, 문윤희, 선우인호) 에 대한 인준 및 총회장 선출이 있었다. 지명위원회 위원장의 선출 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는 후에 선거권을 가진 회원의 산출 및 투표용지 배부를 했다. 두 명의 후보인 강용진, 최미영 후보에 대한 정견발표를 가진 후에 바로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 강용진 전 미시간 회장이 16 대 총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자세한 사항은 총회 회의록 참조)



2) 제 2 회 백범일지 독서감상문쓰기대회 시상식

일시: 2012 년 7 월 28 일 토요일 6:00-7:00 PM

장소: Hyatt Regency Reston, Reston VA

본 협의회는 본국의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 《재단법인 김구 재단》과 공동 주최로 겨레의 큰 스승이신 백범 김구선생의 삶과 사상이 담긴 『백범일지』를 통해, 자라나는 재외동포 청소년들에게 선생의 생애와 겨레사랑, 나라사랑 정신을 바르게 알리고, 참된 용기와 지혜, 불굴의 투지와 희생정신을 고취시킴과 동시에 대한민국을 모국으로 하는 한국계 재외동포로서의 정체성을 바르게 지녀 개인과 사회, 국가와 인류를 위해 자신의 역할을 다 하도록 돕고자 재미한국학교협의회 14 개 지역협의회 소속 한국/한글 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제 2 회 『백범일지』 독서감상문 쓰기대회를 개최했다.

재미한국학교협의회 (NAKS) 14 개 지역 협의회 소속 한국학교에 재학중인 6-12 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제 2 회 『백범일지』 독서 감상문 쓰기대회”를 개최하였으며, 도서는 미주 지역 한국/한글학교 학생들의 한국어 운용 능력에 적합한 『김구 아름다운 나라를 꿈꾸다』로 선정, 실시했다.

전국 14 개 지역협의회 40 개 학교에서 362 명의 학생들이 신청하고, 187 명이 응모했으며, 12 명의 수상자를 냈다. 심사는 본국의 중견 소설가이자 숭실대 교수인 조성기, 김미진 씨가 맡았다.

수상 학생 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구재단에서는 참가 학생 모두에게 연필이 가득 담긴 연필통을 선물로 주었고 상을 받은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도 소정의 도서를 구입하여 보내왔다.

제 2 회 백범일지 독서감상문 쓰기대회 수상자 명단				
상 구분	수상자	수상작 제목	지역협의회	소속 한국학교
백범상	류예주	마음 좋은 사람 백범 김구	북가주	빛의 나라한국학교
최우수상	곽민지	한국을 사랑한 백범 김구	동남부	애틀랜타한국학교
	윤도일	백범 할아버지께	동중부	남부뉴저지통합한국학교
우수상	황병건	『김구 아름다운 나라를 꿈꾸다』를 읽고	미시간	디트로이트 한국문화학교
	정송이	소원한 독립, 성공한 독립	북가주	성 김대건한국학교
	조태형	『김구 아름다운 나라를 꿈꾸다』를 읽고	워싱턴	열린문 한국학교
	김나해	역사를 만드는 길을 꿈꾸다	동북부	푸른겨레한국학교
장려상	이정민	공원에 꽃을 심는 자유	뉴잉글랜드	뉴잉글랜드한국학교
	김소진	내 마음의 천사 백범 김구	동중부	남부뉴저지통합한국학교
	고채린	『김구 아름다운 나라를 꿈꾸다』를 읽고	북가주	뉴라이프한국학교
	이재현	세상을 바꾸는 문지기	뉴잉글랜드	뉴잉글랜드한국학교
	권소연	우리가 꿈꾸는 나라	서북미	워싱턴통합시에틀한국학교

3) 제 2 회 교사 역사문화퀴즈대회

일시: 2012 년 7 월 28 일 토요일 7:45-9:15 PM

장소: Hyatt Regency Reston, Reston VA

백범일지 독서감상문쓰기 대회 시상식을 마치고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초청 만찬이 진행되었고 이어서 제 2 회 역사문화퀴즈대회가 이어졌다. 전 지역에서 25 명의 교사가 개인 자격으로 참석하여 골든벨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 행사는 심정균 홍보부장이 진행과 사회를 맡았고 퀴즈 문제는 강원대학교 류승렬 교수가 출제하였다.

대상 1 명에게 해외한민족교육진흥회 이기택 이사장의 상장과 상금 \$500, 금상 1 명에게 상장과 \$300 의 상금, 은상 2 명에게 상장과 상금 \$200, 동상 3 명에게 상장과 상금 \$100 을 수여한다. 김경근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의 격려사로 시작된 한국역사문화퀴즈 대회는 선생님들의 큰 관심을 집중시켰으며 한국 역사 문화의 이해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켰다. 각 선생님에 대한 응원전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낙스 역사 31 년 만에 처음으로 기이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호텔 안에 위치한 Panera 에서 오픈 과열로 Fire Alarm 이 울려서 대회 중에 호텔 밖으로 대피하는 일도 있었다. 선생님들은 오랜 만에 호텔 밖으로 나가 워싱턴 지역의 밤 공기도 쉼과 담소를 나누었다.

다시 행사장으로 돌아와 역사문화퀴즈대회를 무사히 마쳤다. 역사문화퀴즈대회 수상 교사 명단은 다음과 같다.

대상: 박현수 교사
 금상: 윤동숙 교사
 은상: 송아리 교사
 동상: 최중규, 노의담, 박은영 교사





종이접기 강사 및 종이접기 영재 지도사 자격증 수여식과 각 지역협의회 별로 장기 자랑 대회가 진행되었고 새로 총회장으로 당선된 강용진 박사에게 본 협의회 기를 전달했다. 지난 2년 간 나스를 위해서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은 15대 임원에 대한 인사와 끝으로 집중연수를 포함한 1주일 간의 학술대회는 개최지인 워싱턴 지역의 선생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2013년 하와이에서 만나기로 하고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종료 후에 빨리 떠나야 하는 임원들을 제외하고는 15대 임원이 모여서 남은 짐을 정리하고 평가서를 정리하였다. 발송해야 할 메일도 발송하고 남아 있는 근속 교사패 등을 지역 회장님들께 맡기는 등의 학술대회 정리를 모두 마치고 조용해진 호텔을 떠났다.

예상치 못했던 소방차의 출현으로 계획했던 시간보다 1시간 여 늦은 시각인 밤 11시 30분에 종료를 했으나 소방 훈련 마저도 즐거운 추억 속으로 흘러보내며 또한 워싱턴 지역 선생님들이 헌신을 마음에 새기며 즐겁고 의미있는 학술대회를 위해서 그동안 수고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를 드린다. 끝.

<글: 학술대회담당 부회장 최미영>

붙임: 학술대회 특강 및 분반 강의표

학술대회 특강 및 분반 강의표

목요 특강 I	한국어의 어제와 오늘	김세중
목요 특강 II	미국의 한반도 정책	이채진
목요 특강 III	2012 년 16 회 SATII 한국어 모의고사 평가 및 특강	방정웅
목요 특강 IV	세 번째로 제일 좋은 결정	스티브 모리슨
목요 문화 특강 I	우수한 우리의 종이문화, 종이접기 세계화 전략	노영혜
목요 문화 특강 II	전통 고깔접기를 활용한 창작품의 세계	강명옥 외
목요 문화 특강 III	인재로 키우는 종이접기 영재교실	강명옥 외
금요일 분반 강의	일기 예보를 활용한 어휘 및 문법의 효과적 교수 방안	송향근
	수업 준비 시간은 절반으로, 교육 효과는 두 배로!	정안젤라
	배짱이(?) 학생과 개미 교사의 토요일 데이트	황희연
	한국학교 교사의 역할과 책임	변수용
	이륙을 순탄하게: 가장 쉬운 한글 기초 읽기 지도법	이창남
	딸 바보와 만들어보는 이야기 대회	석재혁
	세미나: 한국 문화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조현용
	재미있게 공부하는 맞춤형 수업	엄혜정
	화용론으로의 초대	이해영
	유아를 대상으로 한 한글 교육	이현주
	한국어능력시험의 이해와 발전 방향	안정현
	비교문화로서 한국 문화 교육의 내용과 방법 연구	설인숙
	미국에서 자라나는 2 세 및 입양아들에게 미치는 전통문화 예술 교육과 활용 방법	최지연
	교장 세미나: 움직이는 한국학교	한희영 팀
	자아 정체성 및 사회정서 발달의 중요성: 부모 및 교사의 역할	황은진
	고정관념이란 옷을 벗자, 역사공부를 위해서!	방진효
	한국어교사의 특성과 자질	이관식
	이중언어과정의 재미있는 한국어 수업 만들기	안은숙
	선생님, 이런 수업 어때요?	김정선
	Make your own Wave: 한류 문화 콘텐츠를 이용한 분석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교수법	신미나
	교장 라운드 테이블: 함께 성장하는 한국학교	각 학교 교장
토요 특강	글로벌 시대의 교육	수지오
토요일 분반 강의	재미 교포 아동 학습자를 위한 읽기 텍스트 활용 방안	장미경
	한국 교과서에 실린 만화 이야기	황중환
	과제(Task)중심 학습 활동과 활동지 제작	조은영
	초짜 교사들을 위한 학생 다루기 대작전!	송아리

파워포인트 전자책을 활용한 한글 교육	박용준
종이접기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육	한기선
라운드 테이블: 한국어 3 급 교원 양성 과정 및 자격 시험	송향근, 육효창
NAKS 표준 교과과정: 입문, 기초, 초급 과정 제시 및 활용을 위하여	이승숙, 오승연, 이명진
한국어 어문 규정	김세중
제 3 의 아이들: 내가 어디에 속하고 나를 어떻게 표현하지?	정정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류선숙
영어 화자를 위한 효과적인 한국어 교육	변우영
한국을 재미있게 알리자	김호산
라운드테이블: 닉스의 과거, 현재, 미래 (전, 현직 총회장, 이사장, 지역회장)	
NAKS 표준 교과과정: 중급, 고급과정 제시 및 활용을 위하여	오정선미, 강주연
훈민정음의 체계 및 제자원리, 주요 규정에 대한 이해와 한국어 교육의 실제	육효창
교실에서의 한국어 능력 평가	이정희
한국 문화 삼천 년 비밀을 나노 과학적으로 풀어본다	이충시
즐겁고 행복한 종이접기 놀이	유진선
30 년 간의 한글 교육 경험으로, 가장 알기 쉽게 가르치는 노하우 공개	김소윤
라운드테이블: 재외동포재단 이사장과의 만남	김경근